



국내은행의 핀테크 지원현황과 향후과제

서 정 호 (선임연구위원, 3705-6348)

금융·정보통신 융합 트렌드와 정부의 핀테크 육성 정책에 부응하여 국내은행은 핀테크 기업에 대해 물적·인적·금융 지원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당장은 투자 대비 수익이 낮은 사업이어서 자칫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 상호보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핀테크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난해 이후 국내 은행들은 핀테크(fintech)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에 대해 컨설팅서비스 제공 등 비금융 측면의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 2015년부터 정부는 세계적인 금융·정보기술 융합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고 금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핀테크 육성」을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왔음.
 - 이에 부응하여 국내은행들은 핀테크 분야의 중소기업들과 상담을 지속하는 한편, 이 중 유망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사무공간과 테스트데이터(test data), 그리고 법률·회계·금융·세무 등 각종 컨설팅 서비스(‘멘토링’)를 제공하고 있음.
- 2015년 하반기중 핀테크 기업에 대한 국내은행의 신규 금융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대출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인중·보안, 결제·송금 분야에 은행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핀테크 기업에 대한 주요 은행(5개 은행 기준)의 신규 금융지원 중 대출이 9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분투자는 0.6%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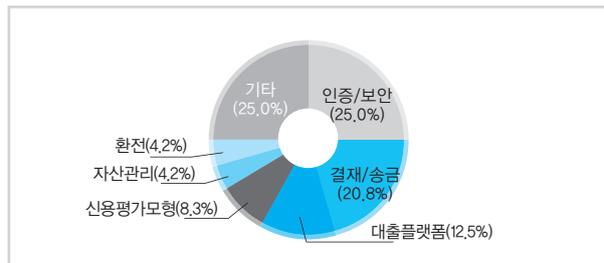
〈표〉 핀테크기업에 대한 신규 금융지원

(단위 : 십억원, %)

신규 대출	신규 지분투자	총금융 지원액	
		지분-스타트업	
1,447.6 (99.4)	8.1 (0.6)	2.1 (0.1)	1,455.7 (100)

주 : 2015.7~12월중, ()는 총금융지원액 대비 비중, 스타트업은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으로 정의함.
자료 : 5개 은행(KB, 신한, KEB하나, 우리, IBK) 기준

〈그림〉 멘토링 대상 핀테크 기업 구분



주 : 2015년말 현재 은행 내 입주한 핀테크 기업 대상, 기타에는 지역기반 광고 등 부가서비스가 포함됨.
자료 : 5개 은행(KB, 신한, KEB하나, 우리, IBK) 기준



• 주요은행(KB, 신한, KEB하나, 우리, IBK은행 기준)에 입주한 핀테크 기업들을 기술유형에 따라 구분해 보면, 인증·보안, 간편결제·송금, 대출플랫폼 관련 사업 순으로 많으며 신용평가모형이나 자산관리 등 데이터 분석 기반의 서비스 비중은 낮음.

■ 이처럼 핀테크 분야에 대한 은행들의 관심과 지원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핀테크가 당장은 투자 대비 수익이 낮은 사업이어서 자칫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 새로운 금융거래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 또는 핀테크 기업들을 멘토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은행이 초기에 회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검증단계의 기술을 선불리 도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은행 IT시스템의 불안정성과 보안문제 등을 우려하기도 함.
-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경우도 자금회수에 대한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음.
- 일부에서는 은행의 고객접점이 핀테크 기업이나 비금융회사로 이동하는 문제 등으로 은행이 주도하는 핀테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의문시하기도 함.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핀테크 생태계가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핀테크를 신규고객 창출 등 성장전략에 적극 활용하고, 핀테크 기업들은 은행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를 공급해 주는 등 상호보완적 관계가 강화되어야 함.

- 은행들이 지급결제 등 신규수요가 창출되기 어려운 분야에 핀테크 투자를 집중할 경우 은행 간 IT시스템 투자 경쟁을 촉발시켜 투자 대비 수익성은 더욱 하락할 것임.
- 한편 금융권 공동 오픈플랫폼¹⁾ 서비스가 개시되면(금년 6월 예정) 틈새시장을 침투하기 위한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은행권은 핀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서비스의 완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2000년대 초반 닷컴기업에 대한 투자실패가 재현되지 않도록 은행들은 리스크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임.

-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들의 사업성과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하고, 내부의 투자의사결정 프로세스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정책당국은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동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오픈플랫폼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 상호보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핀테크 지원 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임.

- 영업망을 단기간에 구축하기 어려운 해외시장에서는 핀테크가 오프라인 네트워크의 취약성을 보완해 줄 수 있으며, 비금융회사들로부터 신규고객을 유치하는 수단으로도 핀테크는 유용함.
-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예컨대, 최근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전세계 씨티은행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운영 가능한 혁신적 금융솔루션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이벤트에 한국 핀테크 기업들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음.

- 공동 오픈플랫폼에 참여기관을 확대하거나 API를 추가하는 한편, 개별 은행 차원에서 각행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의 API를 별도로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임. **KIF**

1)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Test-bed를 합친 개념으로 정의함(금융위원회, 2015.7월).